

‘전주정원문화센터’ 여는 날 행사 개최

정원문화 확산 위한 아열대식물원·정원도서관·교육실·식물병원 등 다양한 시설 조성

대한민국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산업 발전을 이끌 거점공간인 전주정원문화센터가 문을 열었다.

전주시는 11일 중화산동 중산공원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김윤덕 국회의원과 백종일 전북은행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 초록 정원사, 일반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정원문화센터’ 개관 행사를 가졌다.

전주정원문화센터는 시민들이 정원 관련 교육부터 정보제공, 휴식, 실습 체험 등을 경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아열대식물원과 정원도서관, 식물병원 및 정원소품 전시(판매)장, 강의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식전 공연으로 문을 연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홍보영상 시청과 사업 경과보고를 통해 센터의 탄생 배경과 비전을 공유했다.

이어 우범기 전주시장의 기념사와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의 환영사, 김윤덕 국회의원의 축사와 백종일 전북은행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특히, 이날 기념식은 전북은행의 헌



전주시는 11일 중화산동 중산공원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김윤덕 국회의원과 백종일 전북은행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 초록 정원사, 일반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정원문화센터’ 개관 행사를 가졌다.

수금으로 정원문화센터 프라에 시민들과 함께 조성한 ‘풀의 기억’ 정원 앞에서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 이 정원은 민·관과 지역사회의 긴밀한 연대를 통한 조성한 정원의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이와 함께 이날 여는 날 행사에서는 ‘2023 아름다운정원 공모전’의 시상식도 진행됐다. 올해의 수상자는 △대동정원상=노송현(작품명: B.G.M-Beautiful Garden and Music) △공룡정원상=조명자(작품명: 길) △올곧음정원

상=한서정(작품명: 팬나무 아래의 평화)이다.

한편, 아열대식물원의 경우 시민들이 사계절 내내 푸르른 정원을 구경할 수 있도록 일상에서 흔하게 볼 수 없는 코코야자와 워싱턴야자, 부채야자 등 110종 2440주가 식재돼 있으며, 다양한 수종들과 더불어 벽천분수와 수생정원 등 색다른 경관을 연출해 눈길을 사로잡았다.

전주정원문화센터는 이날 개관식에 이어 전주시가 직접 운영을 맡아 매달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선보인다. 10월에는 정원문화특강과 시민과 함께하는 정원탐방, 정원 산책, 반려식물 만들기, 전주 정원 탐방, 놀이정원사 양성교육 등의 교육·체험 프로그램이 예정돼 있다.

우범기 시장은 “오늘 문을 연 전주정원문화센터가 향후 다양한 정원 관련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통해 전주의 정원문화 발전을 이끌고, 대한민국 전역에 정원 관련 새로운 가치와 경험을 제공하는 거점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조선팝 매력에 흠뻑 빠져요’

전주시, 13~15일 서학예술광장서 전주조선팝페스티벌 개최

소리의 고장 전주에서 고즈넉한 가을밤 정취를 더할 ‘조선팝’ 축제가 펼쳐진다.

전주시는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전주교대 옆 서학예술광장(완산구 팔달로 74)에서 전통가락에 대중음악을 접목한 조선팝을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2023 전주조선팝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전주조선팝페스티벌’은 조선팝을 관광거점도시 전주의 글로벌 공연 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로, 지난해 여름과 가을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됐던 공연이 올해는 관광객과 시민들이 10월 축제시즌 ‘전주페스타 2023’을 맞아 조선팝의 매력에 더욱 흠뻑 빠져볼 수 있도록 사흘간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먼저, 첫날에는 오후 6시부터 ‘시도’ 팀의 첫 무대를 시작으로 △악

셀 △예결밴드 △가꾸로프로젝트 △FUN소리꾼 △토크토토의 공연이 관객들을 맞이한다. 이어 △보체소리 △거문고소리 △젊은국악단 흥신소 △국악인가요 △파래소 △소리애 △무작관(이상 14일) △풀경리애 △AUDIOBANANA 등의 조선팝 공연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번 전주조선팝페스티벌은 별도의 예약 없이 누구나 현장을 찾으면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사정상 공연장을 직접 찾지 못하는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도록 조선팝 페스티벌 공연 영상을 별도로 제작해 ‘조선팝TV’ 유튜브 채널에도 공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페스티벌이 펼쳐지는 서학예술광장에서는 미니게임과 조선팝 인생네컷, 인기투표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페스티벌의 즐거움을 더하게 된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 자연초 학생 대상 환경교육·쓰레기 처리시설 견학

전주시는 지난 8일 자연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학생들은 쓰레기로 인한 전지구적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올바른 분리배출방법을 배우고, 1회용 플라스틱 컵을 이용한 미니화분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다. 또한 시는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전주권 광역쓰레기처리시설 4개소 견학 프로그램을 제공, 직접 눈으로 전주시의 쓰레기 실태를 보고 심각성을 깨달아 생활 속 쓰레기 감량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한 학생은 “대형폐기물 선별장에 갔더니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2주 만에 그만큼 쌓인다고 말씀해 주셨다”면서 “앞으로 쓰레기를 버리거나 이사 때문에 가구를 버릴 때 부모님한테 조금 낫았다고 버리지 못하게 말씀드리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지은 자연초등학교 담임교사는 “이번 교육이 아이들에게 올바른 1회용품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주고 대량배출되는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직접 보게 되어 쓰레기 감량을 실천할 유도를 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립합창단, 유럽 3개국 해외공연 성황

헝가리·체코·오스트리아서 초청공연 가져

전주시립합창단(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김철)이 유럽 음악의 심장부인 헝가리와 체코, 오스트리아 3개국 초청 해외공연을 성황리에 마치고 귀국했다.

시립합창단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8일까지 7박 9일간의 유럽 3개국 초청공연을 통해 서양음악의 본고장에서 전주를 알리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한 순회공연을 가졌다고 밝혔다.

시립합창단은 이번 순회공연 기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마차시 성당(1일)과 체코 즐린시의 롱그레스센터 그레이트 홀(3일), 오스트리아 빈 무지크페라인(5일)의 세 번의 단독 연주를 선보였다.

첫 번째 연주가 펼쳐진 마차시 성당은 80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성당으로, 성당의 주교는 전주시립합창단을 빛내어 ‘별들의 소리, 천상의 소리처럼 아름다웠다’며 극찬했다.

홍규덕 주헝가리 대사 등은 “헝가리의 개국 역사를 간직한 마차시 성당에서 미사와 함께 공연을 하는 것은 이



례적인 일이며, 현지인들이 최고 수준의 공연이었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고 전하며 국위 선양을 해준 전주시립합창단에 경의를 표했다.

이어 두 번째 연주는 지난 3일 체코 남부의 모라비아지방에 위치한 즐린시에서 열렸다. 소도시인 즐린시는 모라비안 페스티벌을 비롯해, 즐린필름 페스티벌 등이 해마다 열리고 있는 문화중심지로, KBS교향악단 및 조수미 등도 공연을 펼친 바 있다.

이번 투어의 마지막을 장식한 무지크페라인은 세계 최고의 공연장 중 하나로 손꼽히며, 합창곡 주오스트리아 대사는 “음악의 본고장에서, 명성이 자자한 무지크페라인에서 한국합창단이 연주하는 자체만으로도 의미있는

일”이라며 축하하고 격려했다.

오스트리아에서 합창 및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활동하는 Pablo Boggiano씨는 자신이 지휘하는 합창단 단원들과 연주를 관람한 뒤 “단원 모두가 열광했으며 특별한 프로그램이었고 모든 작품이 최고 등급의 환상적인 연주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번 순회공연단의 단장으로 참여한 송영진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장은 “반필하모니오케스트라가 상주하는 공연장에 전주시립합창단이 설 수 있어 기뻛고 축하한다”면서 “전주에도 울림이 좋은 공연장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순회공연에서 △Miserere mei, Deus(Gregorio Allegri) △Bleib bei uns(J.G.Rheinberger) △First Snow(Bo Holten) 등 유럽 작곡가들의 곡과 △가시리(전경숙) △벚노래(전경숙) 등 한국 작곡가들의 음악으로 채웠다.

또, 전주시립국악단의 오정무(해금 수석), 정지웅(대금 수석), 박종석(타악 수석) 단원이 순회와 동행해 한국의 소리를 더해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는 11일 사회혁신전주 성평등전주에서 인권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2023년 전주시 인권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전주시 인권위원회 워크숍 개최

전주시는 11일 사회혁신전주 성평등전주에서 인권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2023년 전주시 인권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이 기조 발제자로 나서 ‘지차제의 인권보장 의무’를 주제로 인권센터와 인권위원회의 쟁점과 발전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형완 소장은 이 자리에서 △인권레짐의 창설 및 운용 문제점 △인권구간의 연계성 △인권센터 및 인권위원회의 발전방향 등의 내용을 발표해 참석한 위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또, 전주를 모두가 존중받는 인권도

시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유토론도 펼쳐졌다.

이와 함께 이날 참석자들은 워크숍에 앞서 전주시 여성 인권과 성평등을 위한 문화예술의 공간인 성평등전주를 탐방하기도 했다. 현장 탐방 해설은 오수연 전주시 인권위원(사회혁신센터 팀장)이 맡았다.

김현수 전주시 인권법무과장은 “제2차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함에 따라 인권정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인권위원들과 생각의 장을 마련했다”면서 “워크숍 개최로 인권정책이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농업인·국민과 함께하는 100년 농협이 되겠습니다

함께하는 100년 농협

삼례 농업협동조합 조합장 강신학

■ 전주완주시군지부 지부장 김대호

■ 구이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최만열

■ 용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이종진

■ 북전주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이우광

■ 봉동농업협동조합 조합장 김운희

■ 운주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정성권

■ 전주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임인규

■ 상관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이재욱

■ 이서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송영욱

■ 고산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손병철

■ 소양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유해광

■ 화산농업협동조합 조합장 김종재

■ 전주원예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양승엽

■ 전주김제완주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김창수